

꼭스놀교회소식



어른과 리더들의 예배

모세 반 예배-매 달 말 핸드크래프트 만들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날, 평안하신지요.

캄보디아 씨엠립은 5월부터 시작된 우기가 그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간간이 오다 9월이 되면 거의 매일 오고, 10월까지 많은 비가 내립니다. 수로가 정비되지 않았던, 2010년도만 해도 씨엠립 전체가 홍수로 몇 년간 난리가 난 적도 있었답니다. 이제는 수로가 잘 정비되어, 이 전처럼, 허리까지 차는 홍수피해는 없는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몇 몇 지역은 아직까지도 9월 10월이 되면 홍수로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꼭스놀 교회는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며 아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꼭스놀 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간 있었던 몇가지 일들을 나눠야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꼭스놀교회 아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버리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 처음이 '버리보 버거숍' 이에요. 처음 1-2년은 힘들었지만, 곧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3년차가 되고, '태국과 전쟁', '국경봉쇄', '태국제품및 상점 불매운동'을 하며 씨엠립의 많은 사업체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앞친데 뢰친격으로 우크라이나 전

쟁까지 이어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품들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거기에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된 불법감금과 스캠단지등의 이유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별이가 없이 '버리보'를 운영해야 하는 상태가 되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산신성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버리보'를 운영하던 치은이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많지않고, 남편인 꼭스놀교회 사역자 분롱의 사례비로 살아야 하는 달 들이 늘어가면서, 분롱도 지쳐가고, 마음에 원망이 들기 시작했나봅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저 버리보를 닫아버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기도하며, 방법을 찾고, 이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원했지만, 분롱은 그저 물질적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로인해 저에게도 화를 내고, 넘지말아야 하는 선들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버리보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물질로 돕고, 자비로 이 땅까지 와서 소망을 기대하며 도움을 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그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함도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이 소명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나봅니다.



주일학교를 돕는 리더들



이스라엘 예배 - 사역자 다빈과 로안

결국 저에게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치은도 따라나가게 되어, 그들을 위해 시작한 '버리보' 프로젝트는 그렇게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분롱'은 20대 초반에 저를 만나, 10년을 함께 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불평과, 원망과, 감사함이 전혀없는 모습인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알기에 다시 일어섭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또 다른 사역자인 '소티'가 사역을 잘 이끌어 주고 있는거예요. 처음 꼭스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13살 정도였던 소티가

잘 성장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잃었지만, 오히려 두 번째 친구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자 사역자, 다빈이 합류하였고, 저희 교회 아이 로안(17)이 파트로 사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꼭스놀 교회를 섬깁니다.

10세 이상은 '이스라엘' 이라고 부릅니다. 10세 이하는 '모세반' 입니다. 어른들과, 주일학교를 섬기는 리더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사울 예배' 입니다. 아픔을 딛고, 조금씩 자리잡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회복되는 교회' 가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늘 도움을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질서가 없고, 도덕도 사라졌고, 사람들의 마음에 중요한 무언가가 없는것 같은 이 땅이지만, 그 빈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부탁드려요.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이성현 선교사 드림.